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1월 8일 ( 제819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 양보(讓步)

흥부내외와 놀부내외가 죽어 염라대왕 앞에 섰다. 염라대왕이 “흥부와 놀부는 듣거라. 보다시피 지금 너희 앞에 똥통과 꿀통이 있다. 각자 어느 통에 들어가겠는가?”라고 하자 놀부가 쩍싸게 똥통 쪽으로 다가가더니 “저는 똥통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다. 흥부는 늘 그랬던 형님이 죽어선들 변했으랴 생각하고는 담담하게 남은 똥통에 들어갔다. 잠시 후, 염라대왕은 두 형제를 통에서 나오게 한 후에 “너희 두 형제는 마주보고 서라.” 하더니 상대의 몸을 깨끗이 훑으라고 했다. 놀부는 아차 했지만 때는 늦었다. 흥부아내와 놀부아내도 염라대왕 앞에 섰다. 염라대왕은 똑같이 두 통에 골라 들어가라고 했다. 그 때 놀부아내가 놀부의 얼굴을 쳐다보니 놀부가 똥통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을 보냈다. 그러자 놀부아내는 행여나 빼앗길 세라 얼른 똥통으로 들어갔고, 흥부아내는 남은 꿀통으로 들어갔다. 조금 후에 염라대왕은 두 아내를 통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에 말하기를 “지금부터 흥부와 놀부는 각자 자기 아내의 몸을 훑아주도록 해라.” 이 말에 놀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양보(사양할 양讓, 걸음 보步)는 남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이 큰 그릇의 소유자나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한다. 양보는 어렵지 않다. 운전을 할 때 끼어드는 자를 위해 차를 조금 늦춰주는 것이고, 버스에서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며, 맛있는 음식 앞에서 상대를 먼저 챙기는 것이고, 교회에서 자리싸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내가 양보하면 다 잃을 것 같지만, 심은 대로 거두고,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뤄져서 나도 양보 받는 경우가 온다. 죽을 때 가족이나 친구, 명예나 재물은 같이 갈 수 없으나 선행은 동행한다. 선행은 욕심을 버린 양보에서 출발한다. 우리 양보한 흥부가 꿀을 먹었음을 기억하자.

# 대접하는 대로 대접 받는 게 만고의 진리다

목사님은 금요일집회를 통하여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기 이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취를 감추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외침 이후 400년 동안 말씀의 암흑기였던 것이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외친 음성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였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말1:6~10).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듯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십자가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수평적으로는 인간과의 관계다. 그런데 그 관계설정的基本이 먼저 대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하나

말로, 의상으로, 환경으로, 모든 것을 들어 인격적인 예우를 갖추는 것이다. 예전에 실업인 세미나에서 목사님은 셔츠 차림으로 참석한 한 장로님을 혼낸 적이 있다. 격식에 맞는 의복을 갖추는 것 역시 상대에 대한 예의요 대접이다. 가까이 있는 직원들을 우대하면 멀리 숨어있던 인재가 찾아오는 법이다. 중국의 한 임금의 노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여 적토마의 유골을 비싸게 사들였더니 전국에 숨어있던 명마(名馬)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왔다 하지 않던가? 대접(待接)은 섬길 대(待), 사귄 접(接), 곧 상대를 섬겨 좋은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다. 인생 성공의 기본이요, 영생까지



모두가 1인 1명씩 전도하자!

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님을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이다. 대접이라 함은 내가 낮아져서 겸손히 상대를 섬기는 자세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만남을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베풀 때, 상대도 나를 인정하고 대접하게 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두루미에게 얇은 접시나 여우에게 목이 긴 병, 거기에 담긴 음식은 제 아무리 별미라 해도 애초부터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대접이 아니라 모욕이다. 음식만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대접이란 정말 상대에 대해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대접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여 영생을 소유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김으로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니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는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는 15일 추수감사주일은 총동원 주일이다. 1인 1명씩 전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보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11월 15일 총동원 주일

한 영혼씩 전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9:20~24)

# 적성이 맞아야 신바람 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참진(眞), 깨달을 리(理)로,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아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듯 말입니다. 또한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여 이행하기 쉬운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나 쉬우면 어린 아이가 이해할 정도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2~3),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7:1),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너무 쉽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진리의 말씀 중 하나, ‘적성이 맞아야 신바람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롬9:20~21)는 말씀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자고로 간장종지로 만든 자가 있

**천직은 즐거움이고  
노동은 괴로움이다**

고, 밥그릇으로 만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는 십 년을 때리며 가르쳐도 앞으로 못 걸습니다. 본시 계는 옆으로 걸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가 가져처럼 앞으로 걸겠다고 하면 세월만 허송하는 것이고, 힘들기만 할 겁니다. 간장종지가 자기도 밥그릇 되겠다며 밥을 담으니 버겁고 힘든 겁니다. 국그릇에 밥을 담을 수는 있지만 격이 떨어지지요. 자기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것이 아니면 힘들다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캐나다 집회 후에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회하러 간 사람이 골프 칠 준비가 돼있을 리 만무한 터, 골프샵에 가서 신발을 골랐습니다. 금장이 달린 가죽 신발부터 으리으리한 신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쪽 귀통이에 있는 저렴한 운동화를 택했습니다. “목사님, 돈 걱정 마시고 저기 저 금데 달린 좋은 것으로 사세요.” 라며 성화인 회원들

에게, 저는 일본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며 ‘가장 좋은 것이란 내게 맞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 장애우인 성도가 신발을 사주면서 제가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공항에 나와 확인한다고 해서 그 신발을 신고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제게 맞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걸으니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혀 나중에는 신발을 벗고 다녔던 일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 자기에게 맞지 않는 집, 자기에게 맞지 않는 직업,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란 이와 같아서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못하는 법,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이나 지

위라  
도 자  
신에  
게  
맞지  
않으면  
집이고  
버거운  
것  
입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적성이지요. 적성이란 맛을 적(適), 성품 성(性)으로 어떤 일에 알맞은 소질이나 성격을 말합니다. 적성에 맞아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신바람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위치에서 보는 일을 해야 즐겁고, 발은 발의 위치에서 걷는 일을 해야 신나는 겁니다. 제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전도자의 길이 제게 맞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눈 때문에 내 적성을 무시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따라 성형하다가 무너리가 되고, 순간 감정으로 결정한 배필로 인해 서로 고생하다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메다 같이 넘어집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6:14). 얼마 전에 교회로 초등학교 동창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행색이 80대 노인처럼 보이자

우리 장로님들이 설마 동창이겠나 싶어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꼭 저를 만나야 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 사람을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잘 나가던 네가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재산 다 날리고 이혼 당하는 바람에 망고생이 심해서 그리 됐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강남 일대에서 사업으로 잘 나가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맞지도 않는 정치판에 들어갔다가 홀랑 다 날린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넌 태생이 정치할 사람은 아니었어. 사업이나 하지 그랬냐?”

망둥이가 똬다고 꼴뚜기도  
뛰면 똬니까? 안 똬  
니다. 송충이  
가 솔잎을  
먹어야  
지  
갈

잎  
먹  
다  
가는  
배  
탈  
나고,  
뱀  
새가  
황새  
따라  
가다가  
가는  
가  
랑이  
가  
찢어  
지는  
법  
입  
니  
다.  
당  
신  
것  
을  
찾  
아  
야  
합  
니  
다.  
이  
것  
이  
진  
리  
입  
니  
다.  
아  
주  
단  
순  
하  
지  
만  
불  
변  
하  
는  
진  
리  
인  
것  
입  
니  
다.  
하  
나  
님  
은  
말  
씀  
하  
니  
다.  
“큰  
집  
에  
는  
금  
과  
은  
의  
그  
릇  
이  
있  
을  
뿐  
아  
니  
요  
나  
무  
와  
질  
그  
릇  
도  
있  
어  
귀  
히  
쓰  
는  
것  
도  
있  
고  
천  
히  
쓰  
는  
것  
도  
있  
나  
니  
그  
러  
므  
로  
누  
구  
든  
지  
이  
런  
것  
에  
서  
자  
기  
를  
깨  
끗  
하  
게  
하  
면  
귀  
히  
쓰  
는  
그  
릇  
이  
되  
어  
거  
룩  
하  
고  
주  
인  
의  
쓰  
심  
에  
합  
당  
하  
며  
모  
든  
선  
한  
일  
에  
예  
비  
함  
이  
되  
리  
라”(딤후 2:20~21). 생김이 각각 다름은, 성품이 각각 다름은, 재능이 각각 다름은 하나님이 제각각으로 쓰시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고전12:29~30).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신바람이 나고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데 그림 그리는 것은 화쟁이라고 하며 자녀에게 공부나 하라고 한다면, 남자가 무슨 요리냐며 검은 가운 입는 검사가 되라고 한다면 당신 자녀의 삶을 불행으로 모는 겁니다. 제발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절대 부귀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평생 맞지 않는 직업, 배필과 힘들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에게 자기 것을 찾아주고, 자기의 길을 가게 합시다. 재능대로, 적성에 맞게 그들을 인도해줄 때 그들이 그 분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산다**

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합(宮合)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부 궁합은 물론이고,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하고, 색깔도 궁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시대 목사하고 궁합이 맞습니다. 이시대 목사 내외가 편하답니다. 제가 모신다고 해도 이시대 목사하고 살겠다고 하십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많은데,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체질에 따라 누군가에는 약도 독이 때문입니다. 교회도 맞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누군가는 조용한 교회가 맞고, 누군가는 우리 교회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박수치는 교회가 맞습니다. 수도에서 녹물이 계속 나오면 파이프라인을 갈아야 하고, 거미줄이 계속 생기면 거미를 잡아야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니까? 버겁습니까? 뭔가 인생길에서 소리가 납니까?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기 것을 찾는 자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겨자씨만한 믿음::

## 속력과 저항은 비례한다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으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합니다. 그러나 차가 40km로 달리니 바람이 꽤 불기 시작합니다. 100km로 달리니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바람 소리가 요란하고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이 이리저리 막 날립니다. 한번은 TV에서 속도 시험을 하는 광경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 주는데, 시속 200km로 달리는 무개차(지붕 없는 차) 운전수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머리털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꼭 귀신의 얼굴, 그것이었습니다. 물리학은 이런 현상을 간단히 설명해줍니다. 그것은 속력과 저항력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속력이 빨라지면 저항력도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최고의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만일 어떤 물체이든지 빛의 속도 이상을 내게 되면 저항력은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저항력이란 그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도 간증하기를, 거듭나기 전에는 말이 교인이자 불신자와 하나도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아무런 갈등도 없이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거듭나더니 핍박이 시작되었답니다. 방언을 하며 귀신을 쫓으니 신비주의 이단이라고 비난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온 세상이 일어나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즉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저항력도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가족과 함께 목수생활 하셨을 때에는 아무도 그를 몰랐고 그의 생활을 훼방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 가 많은 능력, 특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시니 “바알세불에 잡힌 놈”, “나사렛 이단”이라고 갖은 욕과 핍박을 가했고, 마침내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잘 믿으면 욕을 먹지요. 더 잘 믿으면 핍박당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잘 믿으면 마침내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니 칭찬해 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딤후3:12). 자동차가 속력을 내려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어설픈게 닫으면 더 이상한 소리가 나게 마련이지요. 차 밖에서는 바람소리,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사람소리, 별의 별소리 다 날찌라도 그 소리 때문에 차가 서지는 않습니다. 달려갑시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 달려갑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7~18).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열등감의 극복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상처는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역린과도 같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콤플렉스가 되고 마침내 열등감으로 남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뼈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분노로 폭발하고 만다. 사울 왕은 심한 열등감을 가진 인물이다(삼상18:8). 사람들이 자신의 공적보다 다윗의 공적을 더 인정하자 왕좌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왕좌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하나 결국 자신이 죽고 만다. 열등감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신념이 깔려있다. 그러나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열등감도 극복해낼 수 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

세가 되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은 다윗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삼상24:3~11). 사도 바울 또한 언변이 없고 육신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열등감을 극복했다. 갑자기 언변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육신의 가시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치유되어 그런 사소한 단점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것이다. 열등감에 집중하면 열등감이라는 깊은 늪에 빠질 뿐이다.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밧줄을 잡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자. 다른 사람의 인정은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시60:11~12).

김성일

cre8tor@naver.com

###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



::신앙논객::

## 분노는 죄악의 씨앗

최근 들어 인터넷이나 TV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사건사고소식을 보다보면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방화나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좀 맘에 안들거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과 집단 구타를 일삼기도 하고, 최근에 큰 논란이 된 ‘갯마을 사건’ 전후로 고양이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보고 “너도 죽는 수가 있다.”고 위협하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쳐 죽

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가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물만 열납하셨을 때,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까지 변했습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렸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가인은 이 시대의 ‘분노조절장애’의 시초라고 할 수 있지요. 가인이 속에 노와 분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창4:7)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가 죄악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사소한 분이나 화, 짜증이나 투

덜거리는 것까지도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4:26~27)고 당부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열 받을 일도 있고, 부아가 치밀 때도 있고, 속에서 천불이 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틈을 노리는 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죄로 몰들이려는 악한 마귀임을 기억하십시오. 분노를 키워서 육체의 죄 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신혁주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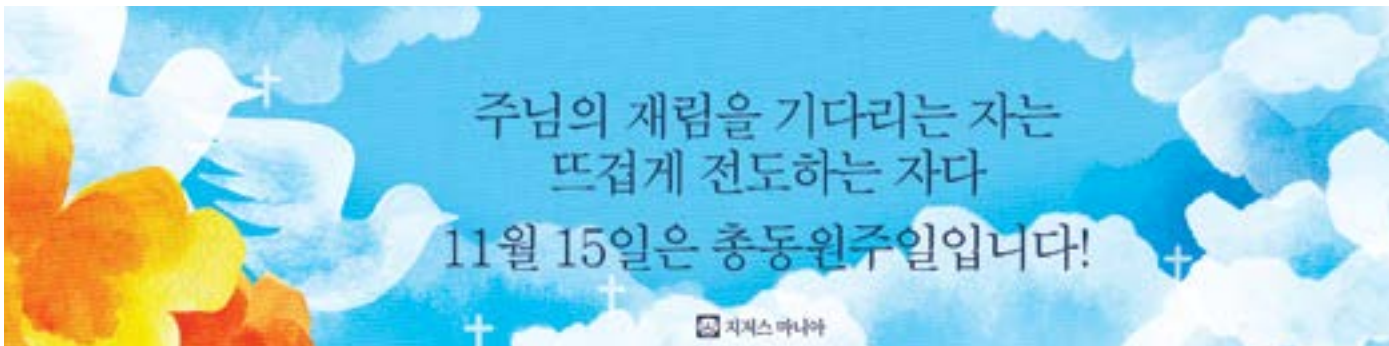
blessedmic@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단골로 잘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 미용실이 잘 해서 가는 이유도 있지만, 이 미용실이 다른 가게보다 조금 더 비싼데도 3년째 다니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용실 사장님과 머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사장님이 교회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편한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갈 때마다 전도자의 심정으로 사장님이 궁금해 하는 성경의 인물 이야기, 은혜로운 말씀 등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매번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 생고구마인 사장님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사장님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장님을 위해 기도했더니 최근 저에게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여쭙보니 친한 친구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사라져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이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인이라며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많은 기독교인 손님들이 사장님 한 명에게 계속 전도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생고구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고구마들이 다 익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곁에서 복음을 전하며 익었나, 안 익었나 정가력으로 찢러봐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이 기도한 성도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좋은 실패

“요즘은 기획사들이 많다 보니 젊은 배우들에게 지름길을 너무 잘 알려준다. 정상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알려주는데, 내려오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배우 손현주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비단 배우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 같습니다. 반에서 1등하는 방법, 수능 잘 보는 방법, 면접 잘 보는 방법, 연봉을 올리는 방법... 우리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들은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잘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질 못했지요. 그래서가 아닐까요, 실패한 후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크게 좌절하는 이유, 또다시 도전하는 것에 겁을 내는 이유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높이 11미터에서 그네를 옮겨타는 곡예사들, 그들이 받는 첫 훈련은 바로, 그물로 떨어지는 방법이라고요. 유도 역시 가장 먼저 배우는 훈련은 상대를 공

격하는 기술이 아니라 잘 넘어지는 방법인 낙법이라지요. 더 이상 그네에서 떨어지는 게 두렵지 않을 때 그네를 자유롭게 옮겨탈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넘어지는 게 겁나지 않을 때 상대를 자신 있게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20대 때 저는 실패를 못 견뎌 했습니다. 공모전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미팅 때 저의 아이디어가 선택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호되게 자책하고 몰아세웠지요. 돌아켜보면 저를 좌절시켰던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저의 자세였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땐 제 자신이 그저 라이벌 같아서 나를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일이 잘 안 되는 걸 다 제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실패하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넌 할 수 있다고 믿어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질 못했지요. 슬럼프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남들을 위로하는

법은 알지만 나 자신을 위로하는 법은 모른다는 걸. 남들을 일으켜 세우는 많은 말들, 나 자신에게는 해주지 못했다는 것도요. 어찌면 나 자신은 이겨야 할 라이벌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 동역자가 아닐까, 그 때 깨달았습니다. 그 후 실패한 자신을 자책하기 보단 괜찮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나의 역량을 의심하기보단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서히 저를 실패를 겁내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되 그것에 쫓 필요 없다는 것,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이유도 없다는 것, 실패란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라는 것, 그러니 조금은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더 이상 바닥을 치고 내려가는 것이 겁나지 않게 됐을 때, 우리에겐 이미 생겨났을 겁니다. 여러 정상을 오를 수 있는 큰 힘아.

신은혜

dopal0203@naver.com

## 감사연습!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부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항암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암에 걸린 어떤 사람이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며 원망하고 좌절하며 지내던 어느 날, ‘어차피 죽을 목숨,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뭔가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자’ 하고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감사, 잠들 때에도 감사, 아플 때에도 늘 감사하며 매 순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결국은 고난을 이기고 불치의 병도 극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UC Davis)대학 로버트 에먼스(Robert Emmons)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 연습’은 실제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외에 신체건강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수준도 올라가게 한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햇살을 볼 수 있으니 감사, 살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 감사,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 두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니 감사, 두 발로 어디든 갈 수 있으니 감사,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니 감사, 될 수 있는 집이 있으니 감사, 감사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곧 행복의 시작 아닐까요?

김정욱 전도사

jcc0115@naver.com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Good News

호화 여객선이 망망대해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실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의 어린 딸은 태연한 모습으로 객실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승객들이 “애야, 너는 무섭지도 않니?”라고 묻자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운전하고 계시니까요.” 아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어린 딸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운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에 한치 앞을 내다볼 없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없더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요1:12). 힘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는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그분이 당신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 2040 젊은 부부를 위한 가정 세미나



2040 부부 세미나 (10. 31. 하이서울유스호텔)

지난 10월 31일 영등포 하이서울 유스호텔에서 ‘2040 젊은 부부를 위한 가정세미나’가 열렸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경적인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1부 정효경 집사의 육아 가이드 강좌를 시작으로, 2부는 이시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행복한 하나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천국가정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셨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첫째,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그 다름의 모양대로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상대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한 사람의 성품이 완성되는 과정에는 우리가 모르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숨겨져 있으니 배우자를 비난하기에 앞서 친히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잠17:9)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분재만 해도 굵은 가지를 길들이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하물며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 마음대로 고치려는 것은 상대를 부러뜨리기만 할 뿐이지요. 우리가 이해와 용납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기다림과 인내로 사랑을 완성할 때 비로소 천국가정의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양가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무엇보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시한 채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자기방식대로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는 경험 많은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경청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에 서부터 시작함을 명심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효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 건강한 가정경제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저축입니다. 돈은 사람이 태어나 죽는 날까지 꼭 필요한 것이기에 돈의 귀중함을 알고 합부로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젊은 시절부터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저축이 쉬운 일은 아니

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교를 듣고 저축을 실천했던 한 가난한 집사님 부부는 너무 힘든 나머지 적금을 해약하러 은행 문 앞을 3번이나 가셨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돌아왔고 결국 원하시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부스러기도 한데 모아 12광주리를 만들어낸 예수님의 경제학을 모방하고, 요셉처럼 때에 맞게 저축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경제정책을 본받는다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과 직분을 초월해 모두가 한 가족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룬 값진 시간이었으며, 참석자들을 향한 목사님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 도전 받은 젊은 부부들의 미래가 기대되는 귀한 자리였다.

하인명

renming@daum.net